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2023. 3.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 목 차 |||

I.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1
II. 그간의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추진 경과	1
III. 제5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2
IV. 제5차 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	3
1. 재정추계 모형 및 방법	3
2. 재정추계 기본설정	4
3.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5
4.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	6
5. 시사점	10
[참고1] 제5차 재정추계 주요 가정	11
[참고2] 대상자수 추계	14

I.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 (목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유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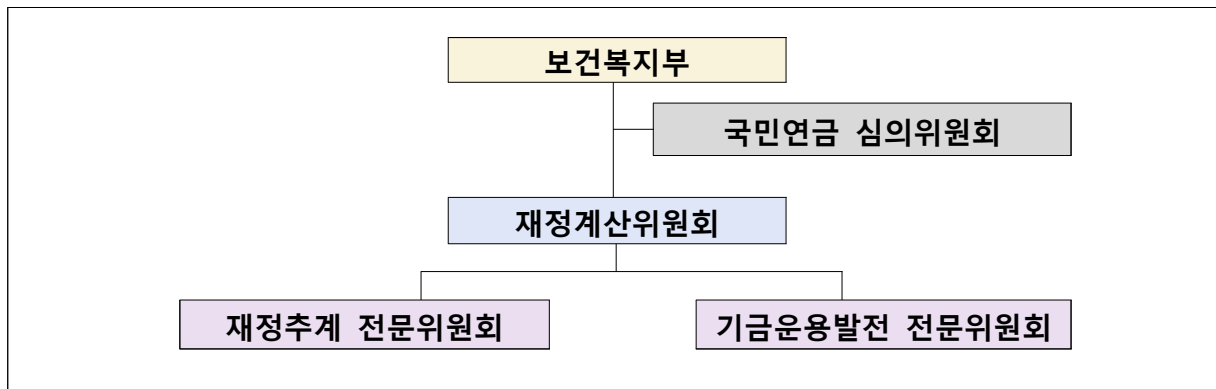
II. 그간의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추진 경과

- 1998년 제1차 제도개혁 : 급여수준 하향(70%→60%), 수급연령 상향(60→65세)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 2036년 수지적자 발생, 기금소진 2047년
 - (재정안정화 방안) ①보험료율 19.85%, 소득대체율 60%, ②보험료율 15.85%, 소득대체율 50%(정부안), ③보험료율 11.85%, 소득대체율 40%
- 2007년 제2차 제도개혁 : 급여율 인하*(60→40%)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 * 2008년 즉시 60→50%로 인하, 이후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 40% 도달
-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 2044년 수지적자 발생, 기금소진 2060년
 - * 2007년 연금개혁으로 추가적 재정안정화 방안은 제3차 재정계산 시 검토기로 결정
-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 2044년 수지적자 발생, 기금소진 2060년
 - (재정안정화 방안) ①부분적립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 상향, ②부과방식으로 연착륙 및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
-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 2042년 수지적자 발생, 기금소진 2057년
 - (재정안정화 방안) ①보험료율 11%(즉시인상), 소득대체율 45%, ②보험료율 13.5%(5년마다 1.5%p씩 인상), 소득대체율 40%
 - * (종합운영계획) ①현행유지 ②기초 40만원 ③보험료 12% 소득대체 45% ④보험료 13% 소득대체 50%
 - ** (경사노위) ①보험료12% 소득대체45%(노총 등), ②현행유지(경영계), ③보험료10% 소득대체40%(소상공인)

III. 제5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추진체계)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되, 추계, 기금 등 필요한 분야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
 - 재정추계 및 기금운용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재정계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선방안 마련

< 구성체계 >



- (추진일정) 재정추계를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및 기금 운용 개선 방안 마련
 -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및 논의 ('22.8월~)
 - * 재정추계전문위원회('22.8~), 재정계산위원회('22.11~),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22.11~)
 -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22.8월~'23.9월)
 - 각 위원회별 핵심 과제 논의 및 계획 수립('22.8월~)
 -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23.1월), 재정추계 결과 발표 ('23.3월)
 -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 (~'23.9월)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23.9월)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23.10월)

IV. 제5차 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

1

재정추계 모형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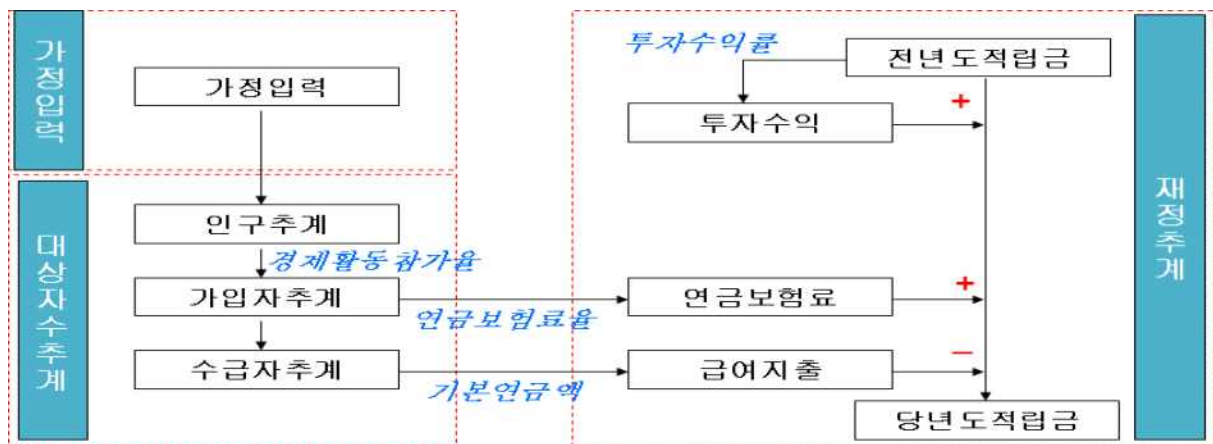
□ 재정추계모형의 개요 : 연금 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

-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사망으로 연금수급을 마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금제도 내용에 맞추어 구현
- 이를 통해 가입자, 보험료수입, 수급자, 급여지출 등을 계산하는 연금 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 사용

□ 재정추계모형의 구조 및 추계방법

- (가정 변수 입력) 외생변수인 인구,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 (보험료율, 급여조건, 급여수준 등)를 설정하여 입력
- (대상자 수 추계) 인구전망을 토대로 경제활동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규모를 전망하며, 가입자 규모를 기준으로 수급조건에 따라 수급자 규모를 산출
- (재정추계) 연금보험료수입, 연금급여지출, 투자수익, 적립금 등 재정 전망 결과를 산출

<재정추계 흐름도>



2

재정추계 기본설정

□ 재정추계기간 : 향후 70년(2023년~2093년)

- 제도의 성숙 및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하여 '향후 7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제4차 재정계산의 추계기간(2018~2088년)과 동일

□ 재정추계 기본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 인구, 거시경제, 및 제도 등 가정변수 전망에 기반하여 기본가정(인구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을 설정*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8개)를 구성하여 민감도 분석 실시

*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결과는 '23.1월 시산결과로 既 발표

-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는 인구·경제변수를 조합한 ①인구고위, ②인구저위, ③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④출산율 OECD 평균, 경제 ⑤낙관, ⑥비관 6가지 조합 시나리오와 ⑦기금투자수익률과 ⑧임금상승률 개별 변수 시나리오 2가지를 설정하였다.

< 재정추계 시나리오 >

구 분	인구			경제변수 (총요소생산성)	비고
	출산	사망	국제이동		
시나리오1	저위(~1.02)			중립	저위중립
시나리오2	중위(~1.21)			비관	중위비관
기본가정				중립	중위중립
시나리오3				낙관	중위낙관
시나리오4	고위(~1.40)			중립	고위중립
시나리오5	0.98	중위	국제이동 감소	중립	초저출산율(코로나19장기영향)
시나리오6	1.61	중위		중립	OECD 평균 출산율

주 : 1) 경제변수의 비관, 중립, 낙관은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설정됨

2) 경제변수는 인구가정과 연관되어서 설정되므로 인구 고위의 중립과 인구 저위의 중립 및 인구 중위의 중립으로 설정된 경제변수는 서로 다름

3)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조합시나리오 외에도, 주요 개별 가정변수들 변동에 따른 분석도 실시

□ 재정추이

- 앞으로 20여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제도성숙으로 '41년 지출이 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을 상회하는 수지적자 발생
- 적립기금은 '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55년 소진 전망
 -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경기 둔화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1> 재정수지 전망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원)	2041년	2055년(△47조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주: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값은 적립기금 규모

- GDP 대비 급여지출은 '23년 1.7%에서 점차 증가, 장기적으로 9% 유지

<표 2>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
5차 재정계산	1.7%	2.7%	4.4%	6.3%	7.7%	8.8%	9.4%	9.2%	8.8%
4차 재정계산	1.7%	2.5%	4.1%	5.8%	7.5%	8.9%	9.4%	9.4%	

주: 추계기간은 4차 재정계산 2018~2088년, 5차 재정계산 2023~2093년

□ 재정평가

- 재정안정화를 위한 5가지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다른 제도요인(소득 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은 불변임을 가정하고, 보험료를 조정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를 추계
 -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17.9%~23.7% 수준으로 제시
 - *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대비 약 1.6%p~1.9%p 증가

<표 3>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보험료를 인상시점 ¹⁾		재정목표(추계기간 말 ²⁾ 기준) 시나리오				
		적립배율 ³⁾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적립배율 ⁴⁾)
5차	2025년	17.9%	18.1%	18.7%	19.6%	20.8% (14.8)
	2035년	20.7%	21.0%	21.9%	22.5%	23.7% (11.7)
4차	2020년	16.0%	16.3%	17.1%	18.2%	20.2% (17.3)
	2030년	18.0%	18.3%	19.3%	20.2%	22.2% (14.0)

주: 1) 보험료를 인상시점은 재정계산 수행 시점 및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기간 2년을 가정(4차 '20년, 5차 '25년)하여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설정 2) 4차 재정계산은 2088년, 5차 재정계산은 2093년 기준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의미 4) 일정기간(약 20년, 2074~2093년)동안 적립배율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 유지

□ 재정추계 결과 보완을 위한 민감도 분석

- 인구변수,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 등의 기본가정에 대한 단일값의 추계결과를 제시하되, 가정변수 및 추계결과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추계결과의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조합시나리오

- 인구 및 경제변수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을 함께 변화시키며, 기본가정(중위중립) 외에 6가지 시나리오 설정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구 시나리오 중 ①고위, ②저위, ③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및 ④출산율 OECD 평균**에 각각의 경제변수를 조합한 4가지 시나리오

* 사망은 중위, 출생과 국제이동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 시나리오임을 고려하여 '초저출산 시나리오'로 명명

** '출산율 OECD 평균'은 OECD 전체 국가의 출산율 평균반등속도(소요기간 12.9년, 증가폭 0.3명)로 증가해 2053년 OECD 평균수준(19년)인 1.61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통계청)

- 기본가정 인구전망(통계청의 중위가정)를 기준으로 경제변수에 대해 ①낙관, ②비관을 조합한 2가지 시나리오

○ 개별변수 시나리오

- 개별변수 시나리오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기본가정에 변동폭*($\pm \alpha$)을 적용하여 설정

* 개별변수의 변동폭($\pm \alpha$)은 변수별 실적 자료('00~'21)에 기초한 표준편차의 15%를 적용

- 5차 재정계산에서는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①기금투자수익률과 ②임금상승률 2가지 설정

*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등 그 외 개별변수는 기본가정 추계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제외, 부록에 수록 예정

<표 4> 조합시나리오의 인구변동요인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합계출산율(명)	0.68	0.77	0.95	1.02		
	기대수명(세)	83.8	84.7	86.3	87.6	88.8	89.8
	국제순이동(천명)	-20	-15	-11	-12	-11	-11
중위 (기본가정)	합계출산율(명)	0.73	0.96	1.19	1.21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43	46	46	43	43	40
고위	합계출산율(명)	0.88	1.16	1.39	1.40		
	기대수명(세)	84.8	86.6	88.5	90.1	91.2	92.3
	국제순이동(천명)	107	108	106	101	100	96
초저출산율 (코로나19 장기영향)	합계출산율(명)	0.62	0.64	0.89	0.98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24	31	33	29	27	25
출산율 OECD평균	합계출산율(명)	비공개(통계청)			1.61('53~)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43	45	45	41	40	37

<표 5> 조합시나리오의 경제변수 가정

(단위 : %)

인구	경제	경제변수	'23~'30	'31~'40	'41~'50	'51~'60	'61~'70	'71~'80	기간평균
저위		실질경제성장률	1.8	1.2	0.4	0.0	-0.3	-0.5	0.2
		실질임금상승률	2.0	2.0	1.9	1.8	1.7	1.6	1.8
		실질금리	1.4	1.4	1.3	1.2	1.1	1.1	1.2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중위	비관	실질경제성장률	1.5	0.9	0.2	0.0	-0.3	-0.3	0.2
		실질임금상승률	1.5	1.4	1.3	1.2	1.1	1.1	1.2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중립 (기본 가정)	실질경제성장률	1.9	1.3	0.7	0.4	0.2	0.2	0.7
		실질임금상승률	1.9	1.9	1.8	1.7	1.6	1.6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낙관	실질경제성장률	2.4	1.8	1.1	0.9	0.7	0.6	1.1
		실질임금상승률	2.4	2.4	2.3	2.2	2.1	2.1	2.2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고위		실질경제성장률	2.0	1.5	0.9	0.8	0.6	0.7	1.0
		실질임금상승률	1.9	1.8	1.8	1.6	1.6	1.6	1.7
		실질금리	1.4	1.4	1.3	1.3	1.3	1.3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초저출산율 (코로나19 장기영향)		실질경제성장률	1.9	1.3	0.5	0.0	-0.4	-0.6	0.2
		실질임금상승률	2.0	1.9	1.9	1.7	1.6	1.5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출산율 OECD평균		실질경제성장률	1.9	1.3	0.8	0.6	0.4	0.5	0.9
		실질임금상승률	1.9	1.9	1.8	1.7	1.6	1.5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주: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 민감도 분석 결과

○ 조합시나리오

-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교적 단기인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
- 인구변수 시나리오의 경우 출산율 변동에 따른 노인부양비 변화로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 인구고위는 기본가정에 비해 높은 출산율로 노인부양비가 낮아져('93년 기준, 92.8%→82.2%) 부과방식비용률도 하락('93년 기준, 29.7%→25.2%)
- 경제변수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에 영향을 미쳐 부과방식비용률 추이에 영향
 - * 경제전망 낙관(중위낙관) 시,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 증가로 기금 소진연도가 1년 늦춰지고(2055년→2056년), 부과방식비용률 하락('93년 기준, 29.7%→27.4%)

<표 6> 민감도분석 결과(조합시나리오)

(단위: %)

시나리오		적립기금		노인부양비 ¹⁾			부과방식비용률			GDP대비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1년	2055년 (-47조)	94.2	104.4	92.8	29.8	33.4	29.7	7.7	8.8	8.8
조합 시 나 리 오	저위중립	2041년	2055년 (-132조)	99.9	115.0	112.2	32.6	38.6	37.6	8.2	9.7	10.6
	고위중립	2041년	2056년 (-209조)	89.0	95.9	82.2	27.3	29.5	25.2	7.3	8.1	7.7
	중위낙관	2042년	2056년 (-259조)	94.2	104.4	92.8	28.0	31.2	27.4	7.2	8.2	8.0
	중위비관	2040년	2055년 (-121조)	94.2	104.4	92.8	32.0	36.0	32.2	8.3	9.6	9.6
	초저출산율	2041년	2055년 (-207조)	108.5	129.1	비공개	34.3	42.0	42.1	8.3	10.0	11.2
	출산율 OECD 평균	2041년	2055년 (-14조)	90.6	96.5		28.7	31.1	25.3	7.6	8.5	7.9

주 : 1)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개별시나리오

-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pm 0.5\%p$ 범위에서 변화시킬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짐
- 임금상승률 가정을 $\pm 0.4\%p$ 범위에서 변화시킬 경우, 수지적자시점 및 기금소진시점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나, 부과방식비용에 영향을 미침

<표 7> 민감도분석 결과(개별시나리오)

(단위: %)

시나리오	적립기금		노인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GDP대비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1년	2055년 (-47조)	94.2	104.4	92.8	29.8	33.4	29.7	7.7	8.8	8.8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기간평균 4.5%)+0.5%p	2043년	2057년 (-81조)	기본 가정			29.8	33.4	29.7	7.7	8.8	8.8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기간평균 4.5%)-0.5%p	2040년	2054년 (-194조)				29.8	33.4	29.7	7.7	8.8	8.8
임금상승률 기본가정(기간평균 3.7%)+0.4%p	2041년	2055년 (-23조)				28.3	31.6	27.8	8.4	10.0	10.8
임금상승률 기본가정(기간평균 3.7%)-0.4%p	2041년	2055년 (-66조)				31.5	35.5	31.7	7.1	7.8	7.1

- 기타 경제활동참가율 등 개별변수는 기본가정 추계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표 8> 민감도분석 결과(기타 개별변수)

(단위: %)

시나리오		적립기금		노인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GDP대비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1년	2055년 (-47조)	94.2	104.4	92.8	29.8	33.4	29.7	7.7	8.8	8.8
경제활동참가율 (기간평균 78.8%)	기본가정+ 0.2%p	2041년	2055년 (-36조)	기본 가정			29.8	33.4	29.7	7.7	8.9	8.8
	기본가정- 0.2%p	2041년	2055년 (-59조)				29.9	33.5	29.7	7.7	8.8	8.7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비율 (기간평균 35.1%)	기본가정+ 0.7%p	2041년	2055년 (-57조)				29.9	33.5	29.7	7.7	8.8	8.8
	기본가정- 0.7%p	2041년	2055년 (-38조)				29.8	33.4	29.7	7.7	8.8	8.8
지역가입자징수율 (기간평균 77.2%)	기본가정+ 0.2%p	2041년	2055년 (-47조)				29.8	33.5	29.7	7.7	8.8	8.8
	기본가정- 0.2%p	2041년	2055년 (-48조)				29.8	33.4	29.7	7.7	8.8	8.8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기간평균 46.0%)	기본가정+ 0.3%p	2041년	2055년 (-48조)				29.8	33.4	29.7	7.7	8.8	8.8
	기본가정- 0.3%p	2041년	2055년 (-47조)				29.8	33.4	29.7	7.7	8.8	8.8
관리비, 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관리운영비 50%, 출산크레딧 100%	2041년	2056년 (-253조)				29.7	33.3	29.5	7.7	8.8	8.7

- 국민연금은 2055년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 보유
 -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제도 운영
 - * 당해연도에 필요한 급여재원을 당해연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조달방식
- 다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매우 중요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기금 역할 강화 필요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기간평균 4.5%)에서 $\pm 0.5\%p$ 변화시킬 경우,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47조원)에서 2057년(-81조원)로 2년 늦춰짐
 - $+1\%p$ 적용 시,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47조원)에서 2060년(-333조원)으로 5년 늦춰지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 효과와 동일

* 민감도분석 대상에는 개별변수 변동폭 설정에 따라 $\pm 0.5\%p$ 만 포함($\pm 1.0\%p$ 는 미포함)

□ 인구변수 가정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 적용

- (합계출산율) '23년 0.73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해, 완만한 회복 전망('30년 0.96명, '46년 이후 1.21명)

* 코로나 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명대)인 91년생의 30대 진입 등

- (기대수명) '23년 84.3세에서 '70년 91.2세까지 증가 전망
- (국제순이동) '23년 4만 3천 명에서 '30년 4만 6천 명으로 증가하고, '70년 4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

<표 9> 인구변동요인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5차 재정계산	합계출산율(명)	0.73	0.96	1.19	1.21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43	46	46	43	43	40
4차 재정계산	합계출산율(명)	1.27	1.32	1.38	1.38		
	기대수명(세)	83.9	85.2	86.9	88.3	89.5	90.5
	국제순이동(천명)	56	33	34	34	33	32

⇒ 4차 재정계산 대비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하여 인구구조는 전반적으로 악화

⇒ 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은 증가

□ 경제변수 가정

-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전망되며, 임금상승률, 금리 및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전망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실질경제성장률) '23~'30년 연평균 1.9%에서 '31~'40년 1.3%, '41~'50년 0.7%로 둔화, 그 이후 기간에는 0.2%~0.4%의 완만한 성장률 유지 전망
- (실질임금상승률) '23~'30년 기간 중 연평균 1.9%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60년대부터 1.5%~1.6%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
- (실질금리) '23~'40년 기간 중 연평균 1.4%에서 '41~'50년 1.3%로 소폭 하락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1.2%로 전망
- (물가상승률) '23년 3.2%(잠정치), 그 이후 기간에는 현재 물가 안정목표인 2.0%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제
-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핵심연령층(30~54세)의 경우, '30년까지 정체 내지 소폭 감소하나 '31년 이후 인구 감소로 노동력 증가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며,
- 여성 핵심연령층(30~59세)의 경우 30~44세는 꾸준한 상승 추세를, 45~59세는 '40년까지는 상승 추세, 그 이후 기간은 일정하게 유지 전망

<표 10> 거시경제변수 가정

(단위: %)

구 분		'23~'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추계 기간 말	기간 평균
5차 재정 계산	실질경제성장률	1.9	1.3	0.7	0.4	0.2	0.2	0.3	0.7
	실질임금상승률	1.9	1.9	1.8	1.7	1.6	1.6	1.5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2.0
	경제활동참가율 ¹⁾	62.5 (71.6)	60.3 (73.6)	57.6 (75.6)	54.9 (74.3)	53.9 (74.5)	53.2 (75.5)	53.4 (75.7)	56.2 (74.5)
4차 재정 계산	실질경제성장률	2.2	1.4	1.0	0.8	0.5	0.6	0.6	1.1
	실질임금상승률	2.1	2.1	2.0	1.9	1.8	1.7	1.6	1.9
	실질금리	1.4	1.5	1.4	1.4	1.3	1.2	1.1	1.3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2.0	2.0
	경제활동참가율 ¹⁾	63.0 (72.4)	59.9 (73.6)	56.1 (74.1)	54.0 (74.9)	52.7 (75.9)	52.2 (76.4)	52.6 (76.8)	56.2 (74.6)

주: 1) ()값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임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기간의 단순평균이며, 기간평균은 4차 재정계산은 '18~'88년, 5차 재정계산은 '23~'93년 기간 평균임

- (기금투자수익률)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한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을 산출하고, 여기에 자산배분 비중을 가중하여 기금투자수익률을 가정
 - 향후 5년('23~'27년) 중기자산배분을 반영하고, 그 이후 자산배분은 중기자산배분 상의 '27년 자산군별 비중 유지, 직·간접 운용비용을 반영
 - 2023~2093년 기간 중 연평균 4.5% 수준으로 전망

<표 11>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단위: %)

구 분	'23~'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추계 기간말	기간평균
5차 재정계산	4.9	4.6	4.5	4.5	4.4	4.4	4.5	4.5
4차 재정계산	4.8	4.6	4.5	4.5	4.4	4.4	4.3	4.5

주: 제시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해당기간의 단순평균임

- ⇒ 4차 재정계산 대비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은 낮게 전망, 금리,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은 4차 재정계산 대비 유사한 수준
- ⇒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수입 감소 효과, 장기적으로는 급여지출 감소 효과로 나타남

□ 제도변수 가정

- 실적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적 방법론 이용, '40년 이후에는 '40년 수준 유지 가정

<표 12> 제도변수 가정

(단위: %)

구 분		2023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기간평균 ¹⁾
5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률	92.6	93.5	93.8	93.9	94.1	94.0
	지역가입자 비중	31.4	30.9	27.9	25.5	23.6	24.6
	납부예외자 비율	40.0	39.2	38.0	36.3	34.3	35.1
	지역가입자 징수율	72.1	73.9	75.9	76.8	77.7	77.2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46.0	46.7	46.4	46.1	46.0	46.0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률	91.7	92.0	92.6	93.0	93.0	92.8
	지역가입자 비중	31.6	30.5	28.2	26.4	26.4	27.3
	납부예외자 비율	46.0	44.7	42.2	40.0	40.0	41.1
	지역가입자 징수율	69.3	70.1	71.6	73.2	73.2	72.5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48.8	48.4	47.9	47.7	47.7	49.1

주: 1) 제시된 제도변수 가정은 해당기간의 단순평균이며, 기간평균은 4차는 '18~'88년, 5차는 '23~'93년 기간의 평균임

- ⇒ 4차 재정계산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및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높은 수준, 그 외 지역가입자 비중, 납부예외자비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은 낮은 수준
- ⇒ 가입률 상승은 가입자 수 증가,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비율 감소 및 징수율 증가는 보험료수입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긍정적 영향

* 제도변수는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쳐 재정중립적이나, 지출보다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먼저 나타남

참고2

대상자수 추계

□ 인구 추이

- (전체 인구) '23년 5,156만명에서 감소하여 '93년 2,782만명 전망
- (18~64세 인구) '23년 3,501만명에서 감소하여 '93년 1,295만명 전망
- (65세 이상 인구) '23년 950만명에서 '50년 1,900만명까지 증가하고 1980년대 이후의 저출산세대가 고령인구에 포함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93년 1,201만명 전망
- (노인부양비,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23년 27.1%에서 '81년에 110.9% 최고수준 이후에는 다소 감소('93년 92.8%)

<표 13> 인구구조 및 노인부양비

(단위: 만명, %)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
전체인구	5,156	5,120	5,019	4,736	4,262	3,766	3,320	2,983	2,782
18세 미만 (구성비)	705 (13.7)	565 (11.0)	513 (10.2)	512 (10.8)	409 (9.6)	344 (9.1)	339 (10.2)	312 (10.5)	285 (10.3)
18~64세(A) (구성비)	3,501 (67.9)	3,249 (63.5)	2,782 (55.4)	2,324 (49.1)	1,984 (46.6)	1,674 (44.5)	1,418 (42.7)	1,322 (44.3)	1,295 (46.6)
65세 이상(B) (구성비)	950 (18.4)	1,306 (25.5)	1,725 (34.4)	1,900 (40.1)	1,868 (43.8)	1,747 (46.4)	1,563 (47.1)	1,350 (45.2)	1,201 (43.2)
노인부양비(B/A)	27.1	40.2	62.0	81.8	94.2	104.4	110.3	102.1	92.8

□ 가입자 수 및 수급자 수 추이

- (국민연금 가입자 수) '23년 2,199만 명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령연금수급자 수) '23년 527만명에서 제도 성숙 및 고령화 진전으로 점차 증가하여 '62년 최고 1,576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 전망

* 65세 이상의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

- 제도의 성숙 및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8년 143.8%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

* 연도별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와 유사한 증감 패턴을 보임

<표 14> 가입자 수 및 수급자 수, 제도부양비

(단위: 만명, %)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
가입자 수(A)	2,199	2,090	1,843	1,534	1,251	1,086	942	901	861
노령연금 수급자 수(B)	527	761	1,160	1,467	1,569	1,501	1,347	1,154	1,030
제도부양비(B/A)	24.0	36.4	62.9	95.6	125.4	138.3	143.1	128.1	119.6

- 제도부양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과방식비용률*은 '23년 6.0%에서 '78년 35.0%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여 '93년 29.7% 수준

*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text{부과방식비용률} = \frac{\text{급여지출총액}}{\text{부과대상소득총액}} = \frac{\text{수급자수}}{\text{가입자수}} \times \frac{\text{평균급여액}}{\text{평균소득}} \approx \text{제도부양비} \times \text{실질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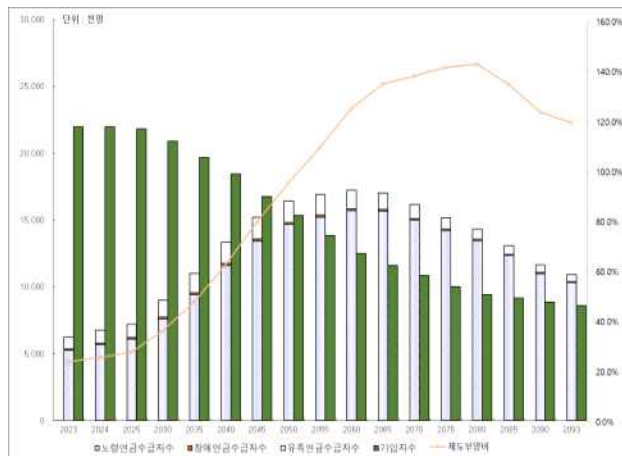
- 4차 대비 인구구조 악화로 제도부양비가 높아짐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 증가. 기금소진연도인 '55년 기준 26.1%로 4차 24.6%('57년) 대비 1.5%p 상승

<표 15>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	소진시점
5차 재정계산	6.0%	9.2%	15.1%	22.7%	29.8%	33.4%	34.9%	31.7%	29.7%	26.1%('55)
4차 재정계산	6.3%	9.0%	14.9%	20.8%	26.8%	29.7%	29.5%	28.8%		24.6%('57)

주 : 부과방식비용률은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총액 비율로 산출

<그림 1> 가입자 수, 수급자 수 및 제도부양비



<그림 2> 노인부양비 및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